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202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0년 2월 14일(금) 13:13 ~ 15:45

2. 장 소 : 우리 회 강당

3. 회의통지 일자 및 방법 : 2020. 1. 28(화) 등기우편

4. 참석임원

(이사) 홍현국이사장, 정용근, 설태호, 김경희, 김정오, 린다백이사
(감사) 최수연, 박철용감사

5.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제적이사 8명 중 임부응, 박경수이사를 제외한 6명, 제적감사 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 이사장이 13:13에 개회를 선언하다.

6. 대표기도

정용근이사가 대표기도를 하다.

7. 전회의록 채택

의장이 배부된 회의록에 대하여 이의를 구한 즉, 이의가 없어 그대로 채택하
기로 하다. (동의: 설태호이사, 재청: 정용근이사)

8. 심의안건 채택

심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다. (동의: 김경희이사, 재청: 김정오이사)

제1호 2019년도 예산 추경(안)

제2호 2020년도 보육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3호 2020년도 홀트학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4호 홀트학교 신규교원 임용(안)

9. 결의사항

제1호 2019년도 예산 추경(안)

원안과 같이 2019년도 예산추경(안)을 승인하다.(동의: 김정오이사, 재청: 정용근이사)



제2호 2020년도 보육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원안과 같이 2020년도 보육시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다.(동의: 정용근 이사, 제청: 김경희이사)

제3호 2020년도 홀트학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원안과 같이 2020년도 홀트학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다.(동의: 정용근 이사, 제청: 김정오이사)

[보완사항]

- 정부의 예산운용체계에 따라 2020년도 예산에 전년도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20년도 예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1)전년대비 당해 연도 예산의 주요변경사항과 2)전년도의 당초예산에서 추경예산이 반영된 최종예산과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3)2019년 예산 및 결산액, 2020년 예산액을 표시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다.

제4호 홀트학교 신규교원 임용(안)

다음과 같이 '홀트학교 신규교원 임용'을 승인하다. (동의: 김경희이사, 제청: 설태호이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임용직명	임용(예정)일
정빈			특수교사(초등)	2020.03.01.
전지			특수교사(중등)	2020.0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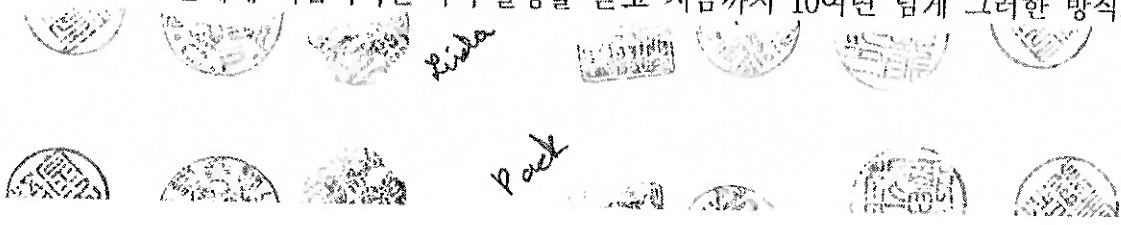
10. 업무보고

- 가. 일산복지타운 재건축 진행사항 보고
- 나. 일산복지타운 미지급임금 조치보고
- 다. 일산복지타운 인권침해 행정처분 보고
- 라. 노사협의회 운영보고
- 마. 외부추천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보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위 5건의 업무보고를 받다.]

- '일산복지타운 재건축 진행사항 보고' 중에서 추가공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재할원3층에의 화재 시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램프 대피로 설치'와 물리치료실 및 생활동의 '장애인 이동리프트 설치'에 대해,
: 일산복지타운 재건축 공사비 전액을 정부의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건축하고 있으니 2건의 추가공사는 가능한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설태호이사)고 하다.

- : 설계 당시 피난시설을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였고, 지금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하면 건축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일단 준공 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정용근, 김정오이사)고 하자, 장애인 대피 램프는 화재 시 휠체어장애인의 대피가 어려우므로 준공 후 반드시 설치한 후에 입주해야한다(린다백이사)고 하다.
- : 장애인이동리프트의 설치도 건물이 완공된 후에 설치하게 되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준공 전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파일을 박는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다(김경희이사)고 하다.
- : 김호현회장이 휠체어램프설치 비용, 장애인이동리프트 설치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다음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하겠다고 하다
- 일산복지타운 미지급임금 조치보고에서,
- : 김호현회장이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임금을 임의로 지급할 경우 배임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으나,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임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회가 지급했어야 할 임금을 해당 직원들이 알지도 못한 채, 임금채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고, 관리감독 관청인 노동청과 고양시에서도 우리 법인에게 시정요구를 해 음을 감안하여 이번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다.
- : 회의 자료에 법률전문가의 자문도 있지만, 채무가 소멸된 금원을 도덕적인 이유로 이사회에서 지급을 결의하고 지급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책임이 법인에 있는지도조차도 전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사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경영본부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도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중요한 일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이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자료도 없었고, 시설이나 법인의 관계자 및 심지어 직원 당사자분들도 오랫동안 이 상황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즉 무언의 합의와 인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박철용감사)고 하다.
- : 또한,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미지급임금의 지급의무가 온전히 우리 법인에게만 있는지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지급한 임금인데, 지급당시 지자체에서 정한 지급방법이나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민간시설에서 민간의 자본으로 운영된 일의 문제는 민간시설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자체의 보조금과 지자체의 정책에 의해 발생한 오랜 기간의 임금의 문제에 대해 민간기관에만 도덕성과 책임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정당한지도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지난 번 이사회 때도 보고되었지만 최초로 특수근무수당 보조금을 고양시로부터 받고 그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부분을 어떻게 하냐고 담당공무원에게 물었을 때 그 보조금에서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당사자들에게 지급하라는 구두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10여년 넘게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



된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므로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부분을 정말 법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인지 또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절차와 과정을 보았을 때 고양시 공무원의 구두 설명과 같이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그 특수근무수당 전체 금액에 법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포함되었던 것인지는 명확히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철용감사)고 하다.

: 고양시나 노동청에서는 '배임죄에 해당 한다'라는 해석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우리 회에 미지급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가?(설태호이사)라는 질문에, 우리 회가 사용자부담금 문제를 알았을 때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근로자 임금에서 사용자부담금을 공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배임죄 여부를 떠나 시설에 책임을 물어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다(김호현회장)라고 설명하다.

: 고양시나 노동청의 지급요구 공문서가 '행정처분'인가? 그렇다면 정부의 행정처분이 실정법을 우선할 수 있는가?(정용근이사)라는 질문에, 행정처분이 실정법에 우선할 수 없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 어떤 근거로 고양시나 노동청에서 지급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일 경우 상호조정을 통해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김정오이사)고 하다.

: 공식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고양시와 노동청에 질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지급하는 것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며, 미지급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격려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변호사가 제시한 별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라(정용근이사)고 하다.

: 배임죄에 대한 유권해석은 고양시나 노동청이 아니라 '법제처'로 알아보아야 한다(김정오이사)고 하다.

: 지급해야 되는 돈을 주지 않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하면 배임죄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 말이 되지 않는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이고 그 채무는 언제든 변제할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죄가 되는가?(최수열감사)라고 하다.

: 이와 같이 이사회와 집행부에서 미지급임금의 지급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가능한 지급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양해를 구하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설태호이사)고 하다.

- 2020. 7. 4에 외부추천이사인 김정오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을 보고 받고 참석이사 전원이 김정오이사의 재추천 요청에 동의하다.

이상과 같이 안건 심의를 완료하고 정용근이사의 동의와 설태호이사의 재청 후

설태호이사의 폐회 거도로 16:45에 위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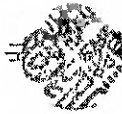
Back

위 결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하다.

2020년 2월 14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

이 사 장 홍 현



이 사 정 용 근



이 사 설 태 호



이 사 김 경 희



이 사 김 정



이 사 린 다 백

Linda Park

감 사 최 수



감 사 박 철



Linda

